▶세미나 (4. 28~29)◀

제주의 세계화 : 전략적 위상설정을 위한 발상

고 충 석*

Ⅰ.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 오늘날 인류가 전 지구를 포괄하는 하나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정치영역에서, 경제영역에서, 문화와 정보교환의 영역에서 심지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생태학적 상호관련성 속에서 단일세계의 모습은 분명해지고 있다. 인간 의사전달의 다양한 형태들이 점차 조밀해지는 하나의 네트워크 속에서 전 지구를 덮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경 없는 사회(Borderless Society), 지구촌 사회(Global Small Village)라는 말이 유포된 것도 벌써 한 세대전의 일이다.

○ 세계화는 지방화(Localization)와 분리할 수 없는 현상이다. 세계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분권화를 촉진하고 분권화가 다시 지방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분권화된 지방이 독자적으로 세계무대에 나서는 것이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니고 이상할 것도 없다. 더욱이 경쟁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 더욱 그러하다.

○ 겨울이 오면 옷을 두텁게 갈아입듯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 그에 응전하기 위한 전략 또한 변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비전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동북아의 작은 섬 제주에도 어김없이 밀어닥치고 있는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을 헤쳐나가 지역의 자존과 발전을 세우기 위한 발상의 틀을 거시적 맥락에서 고민하고 있다.

○ 이를 위해서 우선 세계화 현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변증법적 메카니즘을 세계화(전지구적 패러다임의 전환)와 지방화('지방의 반란'을 위한 촉매), 그리고 세계화의 야누스적 두 얼굴로 나누어 고찰한다.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희미하게 내재하고 있는 제주의 세계화, 그 역사적 경험을 들추어내어 오늘에 음미하고 제주의 세계화 전략개발을 위한 발상의 틀로서 '인간의 얼굴을 한' 제주형 세계화 모델을 탐색해 본다.

Ⅱ. 세계화의 십자포화, 그 변증법적 메카니즘

1. 세계화와 지방화의 변증법적 메카니즘

1) 세계화 : 전지구적 패러다임의 대전환

○ 새로운 천년의 시작, 21세기는 '세계화(Globalization & Globalism)'를 키워드로 지금까지의 인류역사에 유례없는 변혁을 가할 것이고 기존의 시각이나 언술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할 것이다. 인류사회의 다양한 부분들을 서로 연결짓는 것, 이것이 세계화의 요체이다. 그러면서도 그 실체는 아직도 불분명한 채, 이 현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 몇 가지 담론들만 존재한다.

○ 하비(Harvey)는 세계가 축소하고 있음을 시간-공간의 응축으로 특징지우면서 세상의 종합적 모습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 시간대 세계시민들에 의해 경험됨을 강조하고 있다.

○ 기든스(Giddens)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인간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강조한다. 전지구적 상호의존이 넓어지고(Stretching) 있으며 동시에 깊어지고(Deepening) 있다는 것이다.

○ 샤피로(Shapiro), 앨저(Alger), 자일스(Ghils) 등에 의하면, 전지구적 상호의존의 심화, 시공간의 재구성이라는 새로운 문명사의 태동은 전 지구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 속에서 가능해지고 있다고 한다.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이른바 공간조정 테크놀로지(Space-adjusting Technology)라는 것이다.

○ 젠킨스(Jenkins)는 공간조정기술에 힘입은 자본의 세계화가 국민국가가 아닌 자본 그 자체를 기본 단위로 한 글로벌경제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로의 이전은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에서 초국적 기업

* 제주대 교수

(Transnational Corporation)으로의 변화에서 극명하게 추적된다.

- 맥그루(McGrew)에 의하면 어느 한곳의 정치는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하여 다른 곳의 정치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제, 과학기술, 군사력은 전지구적 수준에서 행사되며, 그 행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 특히 핸더슨(Henderson)은 세계화 논리를 그대로 체화하면서 세계사의 변화를 추진하는 행위자로서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지배관할의 새로운 조직형태로 국제적인 비정부 민간조직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신사회운동[1]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 세계화 담론은 근대성의 담론과는 대조적으로 각 민족 혹은 지역 문화의 정체성 및 공동체를 그대로 인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어느 사회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명제가 가능한 것이다.

2) 지방화 : '지방의 반란'을 위한 분권화

- 가속화하는 지구화 과정 가운데서 국민국가는 생활의 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왜소해졌고, 반면 생활의 작은 문제 등에 대해서는 너무 큰 것이 되어 버렸다. 또 동시에 사회관계가 수평적으로 확대되고(세계적으로) 동일한 과정의 일부가 됨으로써, 지방적 자율과 지역적·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
- 이런 맥락에서 한 나라 영토의 부분단위인 지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새삼스런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첫째는 세계적 기업들의 입지선별의 대상으로서 그 생산공간적 가치이다. 각 지방은 이제 그 상급 정치·행정 체제인 국가의 중재 또는 간섭없이 외국기업들의 선호여하에 따라 '세계적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 두 번째 차원은 지방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경제적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에서이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은 아주 유연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적인 것이어서, 과거와 같은 국가단위의 거시적 조절체제보다는 기민하고 미시적인 조절체제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비교적 소규모 지방정치 및 행정체제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 끝으로 세번째 차원의 관심은 세계 경제의 지역·사회·인간적 파급효과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종래 국가가 담당해 온 냉혹한 시장법칙의 사회적 중재를 이제 지방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 결국 지방화는 탈국가적이면서 지역사회 위주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엄밀한 정의로서 지방화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정치적 의사 결정과 집행, 경제적 자원의 관리, 문화의 창조 및 향유 등 주요 공동체 활동에서 중앙중심의 체제로부터 지방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또 하나의 변증법, '장미빛 내일'인가 '환상의 서곡'인가

1) 장미빛 내일의 논리 : 근대성에서 세계성으로

- 오늘날의 세계화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명을 지닌 사회와 사람들을 한데 아우르는 전지구적 체계로서의 세계를 지향함으로써 인간의 상호작용, 상호연관 및 상호인식을 세계라는 하나의 단일공간 위에 펼쳐놓으면서 참여자 모두에게 다원적 이익을 제공하고 참여하지 않는 자보다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유익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 세계화 옹호론자들은 이제 '시장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Market)'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들은 시장에 의한 정부하에서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질서를 조직함에 있어서 시장의 원리를 강화할 때 경제적 재화 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 특히 세계화한 정보체계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세계시간'의 차이를 줄여 줄 것이고 공간의 거리를 좁혀 줄 것이다. 시장, 사회, 문화, 정치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고 선진국과 후진국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윈-윈(Win-Win) 전략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장미빛 내일을 꿈꾸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환상의 서곡 : 20:80 불균형과 불평등의 심화

- '환상의 서곡'의 논리는 오늘날의 세계화 역시 인류가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졌던 질곡의 역사의 재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1) 신사회운동은, 정치권력을 향한 정치운동으로 성격 지어지는 노동운동으로 대표되는 구사회운동과는 대조적으로 관심영역을 시민권이나 정치권력의 차원 못지않게 가치와 생활양식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 영역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신사회운동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출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준동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본의 이해가 매우 강렬하게 표면화된 것인 만큼, 세계화는 서구 중심부 경제, 중심부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과정이라는 점이 지적되면서 이것의 일차적 해결 역시 서구 선진자본주의의 재구조화에 국한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는 또 다른 불평등과 구시대적인 종속의 고리를 강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 세계화 옹호론자들이 내세우는 공존의 논리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세계화 비판론자들에 의하면 세계화 물결은 지역간, 부문간, 사회집단간의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도 세계화의 제약에 의해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세계화 비판론자들은 궁극적으로 세계화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범세계적 확산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워싱턴 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처방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안정화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이윤동기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오던 국영기업을 민간에 매각하고, 대량실업의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국가의 규모를 줄이고, 가난한 민중들에게 빈약하게나마 주어져 왔던 건강, 주택, 사회보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서도, 국내시장을 외국의 글로벌 자본에 개방할 것을 강요한 것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화는 '환상의 서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Ⅲ. 제주의 세계화, 전략적 위상설정을 위한 발상

1. 역사로 부터의 해답

- 제주도가 해양위에 떠있는 섬(크지 않지만, 작지도 않은)이라는 사실은 그 역사에 하나의 기본상수로 작용해 왔다. 수산업이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해상루트가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어 교역이 활발하던 시대에 해상의 교통요충에 자리한 제주도는 번영을 구가했다. 반면에 농업문명이 정착되고 인구의 대다수가 육지에서 활동해온 시대에는 변방으로 밀려나 있었다. 크게 제주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전자는 독립국으로서의 탐라국 시대에 해당하고 후자는 탐라국의 해체 이후 중앙왕조국가에 하나의 지방으로 편입된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탐라국 시대의 제주도는 해양 중에 위치한 절해고도(絶海孤島)가 아니라, 고대 동북아시아 해상교류의 거점 지역이었다. 탐라국 1천년 간 제주인의 정신세계는 해양과 직결되어 있었다. 제주인들은 섬이라는 한계를 과감하게 바다를 통하여 극복하여 갔다. 그리고 그 바다는 사면으로 개방되어 있었다.
- 동아시아의 지도를 거꾸로 돌려놓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주도는 북쪽으로 한반도, 서쪽으로 중국, 동쪽으로 일본, 남쪽으로 대만과 오키나와 열도에 둘러싸인 동아시아 해양의 정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는 먼 고대부터 생산지가 다른 다양한 물자가 모이고, 재배급되며 매매와 교환이 이루어지는 물류센터였다. 제주도는 제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동아시아 해양으로부터 모든 인종과 모든 문화가 모이는 해양교통의 십자로를 형성했던 것이다.
- 그러다가 중국문명이 동아시아의 주된 흐름으로 정착되고 육상교통이 산업과 행정의 일차적 통로가 되면서 해양왕국 탐라는 고려와 조선에 복속되고 점차 주변부 변방, 격절과 고립의 나락으로 떨어져 갔던 것이다. 고려, 조선의 두 왕조는 해상활동에 별 뜻이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해상거점적 중요성은 퇴색되어 갔다.
- 제주의 세계화 담론은 제주의 역사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제주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회고해 볼 때 고립성과 개방성은 제주역사의 명암을 갈라온 중요한 지표이다. 슈펭글러의 말처럼 역사는 순환하는 것이다. 21세기는 다시 해양의 세기이다. 물류, 외교, 군사의 대결이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비중이 그 이전보다 훨씬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 싱가폴 아일랜드와 오키나와의 사례

1) 싱가폴의 IT 2000 구상과 관광진흥전략

- 면적 641㎢, 인구 290만명의 도시국가,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수출비율이 200%, 자국의 통제범위를 넘어서 있는 국제환경에 자신의 경제를 맡겨야 하는 수출지향적 ·외부 지향적 성장노선, 오늘날 싱가폴에 대한 소개의 핵심이다. 이 속에서 싱가폴은 자신의 내일을 인텔리전트 아일랜드(Intelligent Island)에 걸고있다. 나라 전체를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싱가폴의 세계화 전략은 정보인프라 구조를 구축하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발표되었듯이 오늘날 싱가폴은 정보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IT 2000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싱가폴의 세계화 전략은 싱가폴을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거시적 슬로건 아래, 기존의 제반 경제동력을 역동적으로 가동시키면서 정보기술의 일상화를 통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장려하고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의 연결을 도모하면서 궁

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2) 오키나와의 '국제도시형성구상'과 관광진흥전략

○ '차별과 고난의 섬' 오키나와가 일본의 새로운 성장센터로 발돋움하고 있다. 주일 미군기지의 75%가 밀집해 '밀리터리 아일랜드(Military Island)'로 불리는 곳. 태평양 전쟁때 주민 4명중 1명 꼴로 죽어간 곳. 일본 최악의 빈곤지대인 이 섬이 변신을 거듭하면서 21세기형 발전모델의 첨단을 달리기 시작했다.

○ 오키나와가 새 세기의 개막과 함께 군사전략의 요충지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요충으로 변화하겠다는 것이다. 오키나와는 일본 최남단에 있는 약 161개의 섬으로 된 해양군도로, 그 지리적 위치를 보면 북쪽으로 일본 본토와 한반도, 서쪽으로 중국대륙, 남쪽으로는 아시아 여러 나라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 주목한 일본정부는 일찍부터 전국종합개발계획(1987. 6)에 '오키나와를 일본의 남서단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동아시아의 교류거점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현(縣)정부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키나와는 올해를 '새 오키나와 창조'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 '새 오키나와 창조'의 기점은 물론 2000년 첫 G8 정상회담이다. 1998년 말에 새로 당선된 이나미네 게이기치(稻嶺惠一)지사는 이를 "류큐왕국의 번영기인 '대교역시대' 종언 이후 400년만에 맞이한 절호의 기회"로 보면서, 그러한 기대감을 이른바 '국제도시형성구상'에 담고 있다. 4년 동안의 연구검토를 거쳐 지난 97년 11월 前 오타(大田)지사의 결재가 난 '국제도시형성구상'의 이념 및 기본목표는 '공생', '평화', '자립'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은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의 특성을 살려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다. 교류·협력을 통하여 오키나와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아·태지역의 평화와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도시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3. 제주형 세계화 모델의 개발 :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위하여

1) 제주의 세계화 모델 Ⅰ : 내용모델

○ 세계화가 외부적 변화라면, 내부적으로 이에 자존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 키워드는 정체성(Identiy)[2]이라 할 것이다. 변화가 우리에게 비전을 제공하는 동인이라면 정체성은 거대자본에의 종속을 관리하도록 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담보해주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 제주는 세계의 사회경제적 교환과정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아이덴터티의 확립은 제주를 매개로한 세계경제체제의 상호의존의 順순환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과거 오랜 세월 제주는 변방으로서 해양의 의한 격절성 때문에 아이덴터티를 비교적 잘 보존할 수 있었고, 이것이 오히려 세계화 시대 지역의 자존을 지켜내는 소중한 정신인프라로 기능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해양문명창출의 가능성을 한결 크게 하는 세계화 동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세계화 모델 Ⅰ : 내용모델

	현상적 맥락	정치적 맥락	공간적 맥락	결과적 맥락
CHANGE	GLOBALISATION	DIVERSITY	OUTSIDE	VISION
IDENTITY	LOCALISATION	UNITY	INSIDE	SURVIVAL

○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고유한 아이덴터티의 보존이 최고의 자산인 시대가 오고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아이덴터티를 매개로 세계화를 바라보는 종속적 시각과 상호의존적 시각은 화해되고 융화될 수 있을 것이다[3](물론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이상적인 견해라는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

2) 지역정체성의 부문별 구성항목을 좀더 부연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세계화의 통제권이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점, 경제적으로는 지역주체의 내생적 개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사회문화적으로는 지역의 역사·문화·정신이 발현되어야 한다는 점, 환경적으로는 제주환경원형이 다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3) 발리의 경우 국제관광 없이는 섬의 경제가 죽고 국제관광을 진흥하자니 섬의 사회문화가 파괴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었다. 국제관광은 발리에 富를 가져왔지만 그 댓가는 아이덴터티의 상실과 공동체 사회의 붕괴였다. 발리는 문화관광을 섬 발전의 주요전략으로 하되 문화를 한정된 시장영역에서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섬 고유의 문화와 국제관광객 문화를 분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국제관광객이 원하는 아이덴터티와 그것의 기초가 되는 진정한 발리의 아이덴터티, 즉 두가지의 아이

2) 제주의 세계화 모델 II : 과정모델

○ 세계화로 창출되는 새로운 지역시스템이 기존의 지역사회와 성공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므로 세계화 방향에 대한 지역의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할 때만이 시책에 대한 도덕성(Morality)을 확보할 수 있고 정책수행과정에 있어서 통합(Integration)을 확보, 정책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도민의 참여(Participation)와 지지(Support)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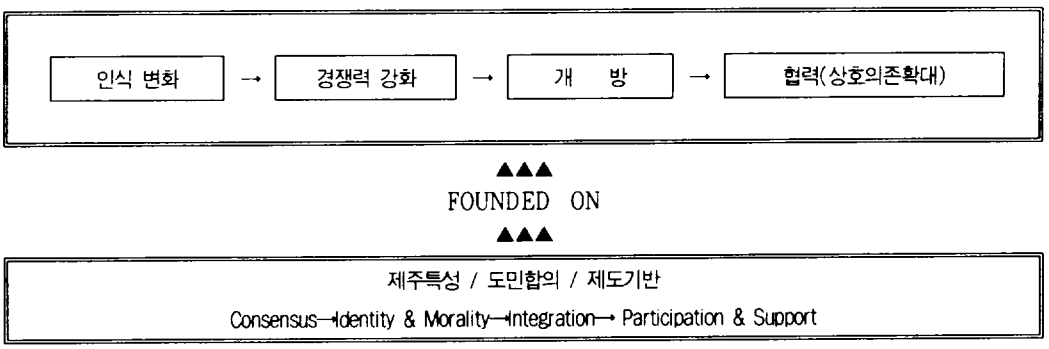
○ 제주의 세계화가 지역에 부여하는 기회와 위협(비전과 생존의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기회는 살려서 지역의 번영과 연결시킬 수 있으며, 위협은 줄여서 지역의 생존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지역에 잘 알려서 지역민이 세계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해야한다.

○ 세계화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간/국가간에 치열한 경쟁과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격심한 경쟁과정에서 살아남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경쟁우위 부문[4]을 찾아내어 이를 특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화를 위한 제반 전략과 정책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채택·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제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가장 지방적인 것만이 세계경쟁시장에서 '전략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5]. 최근에 유행되고 있는 외자유치만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인센티브를 주어 닥치는대로 유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특화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외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기획유치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 어떤 분야의 세계화든 그것은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에서 협력의 제1의적 조건인 개방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싫든 좋든 지구촌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다른 조직·지역·국가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 세계화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생산성 있는 분권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제주형 자치모형[6]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것은 시민주의 에 바탕을 둔 비정부 민간조직(NGO)과 신사회운동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시민단체·정부·기업의 가버넌스(Governance)를 이루어내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시민의 협력없이 정부나 기업만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거나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가버넌스는 지방외교에 인도되어 국가와 세계와의 협력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의 세계화 모델 II : 과정모델



덴터티를 분리하고 관광객을 위한 아이덴터티의 경우 진실성을 확보·조화시킴으로써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4) 경쟁우위 부문의 모색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또한 경쟁우위와 관련하여 규제완화가 필요하나 여기에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돼 환경과 보건 부문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5) 특히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은 제로섬적 약육강식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세계체제의 행위자 각자가 독특한(지방적) 개성을 발현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고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편익이나 파이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화시대의 '경쟁력 강화'가 의미하는 바는 '자'와 '타'의 협력을 전제로 상호의존의 확대를 통한 공동의 번영을 크게 하기 위해 자기의 내부를 정비, 체질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을 말하며, 타국이나 타지역과 협력이 가능한 위치로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6) 제주형 자치모형을 개발함에 있어 행정구조적 측면에서 현재의 행정구조계층을 한단계 축소하는 '하나의 도시' 컨셉을 서둘러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의 응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Ⅳ. 논　　의

○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면서 제주도는 한낱 대륙의 끝이 아니라 21세기 해양을 주도해나갈 중심축으로 부상할 거대한 가능성을 부여받고 있다. 탐라가 역사에서 사라진 이후 잊혀졌던 '동아지중해'가 다시 역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한가운데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에도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 과거의 변방이 미래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구조적 전환과 역사적 순환이 우리 제주도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 거대한 조류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대한 통찰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쉽이 요구된다.